

목자들의 성탄 축하

누기복음 2:1-20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도스가 온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칙령을 내렸을 때에 이루어졌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고 요셉도 다윗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었을 때에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차서 만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심히 비천한 모습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 탄생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받기 위해 탄생하셨다.

천사들의 전한 소식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날 밤, 그 지경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은 주의 천사를 보았다.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목자들은 그 천사를 보고 크게 무서워하였다. 주의 천사는 그들에게 말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과연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해야 할 좋은 소식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주의 탄생 소식이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였다.

천사는 말하였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가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었다. 그 구주는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 주’이시다. 목자들은 가서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며 그것이 그들에게 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통해 구주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셨고 또 표까지 주셔서 그 소식을 믿게 하셨다.

오늘날 이 소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신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구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천사들의 찬양

그런데 그때 홀연히 하늘의 천사들의 큰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땅 위에는 평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은혜로다](전통본문).”

‘지극히 높은 곳’은 태양계와 은하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자기의 특별한 영광을 나타내신 곳 곧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을 가리킨다. 구주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땅 위에서는 평안과, 사람들 가운데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은혜는 구원의 원인이며 평안은 그 결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그 결과, 평안을 누리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 심령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평안을 잃어버렸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참된 평안을 얻는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충만한 복과 평안을 누릴 것이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도 상당한 평안과 기쁨의 삶을 누리다.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장차 천국에서 충만히 누릴 것이다.

목자들의 방문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제 베들레헬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들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았다. 그들은 주의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확인하였다. 또 그들은 이 아기에 대해 들은 것을 다 알려주었다. 듣는 자들은 다 목자들의 말하는 것을 기이히 여겼으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 속에 간직하였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 밤에는 천사들의 찬송이 있었고 목자들의 찬송도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죄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는 우리를 죄와 불행과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주시는 구주 이시다.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기쁘고 복된 일은 없다. 이것은 천사들이 전한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며 오늘날 신약성경에 기록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는 일이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사람들 가운데는 은혜로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의 구원을 받으며 참 평안을 누리다. 성탄의 복은 죄사함의 구원과 참 평안이다.

예수께서는 유다 땅에 탄생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않았었다. 세상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거절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리다. 우리는 목자들같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에게 경배하자.